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63호

2025.12.04.(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미국·코발트	美, 비축용 코발트 입찰 재개시	중국·희토류	中, 19개국과 희토류 동맹 체결
인도·희토류	인도, 희토 영구자석 제조 촉진 프로그램 승인	한국·게르마늄	韓, 국내기업 협력으로 게르마늄 공급망 강화
인니·니켈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 폐기물로 생산량 감축	미국·테크	아마존, 美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중국·반도체	中, 엔비디아 칩 접근을 위해 동남아로 우회	한-미·자동차	美, 韓 車관세 15%로 11.1일 소급 인하

공급망 이슈 포커스

- 미-중·희토류 [미·중 공급망 이슈 둘보기] 中, 19개 국가와 희토류 동맹 결성해 美 협력 체제에 맞대응
- 중국·리튬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일부 광산 운영 중단과 계절적 수요급등으로 中 리튬 가격 급등
- 인도·희토류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인도, 1조 원 규모 희토 영구자석 국산화 프로그램 승인

산업·품목 심층분석

글로벌·반도체 글로벌 코발트 공급망과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원자재 뉴스 PLUS

배터리 에코프로, 헝가리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 준공



II. 월간 공급망



PIIE,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상품 교역 영향 분석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동향 및 시사점



IV. 공급망 소식통



2026 호주 공급망 유망분야 웨비나 (12.18.)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미국, 코발트 美, 비축용 코발트 입찰 재개시	11.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는 연내 5억 달러(약 7,300억 원) 규모의 비축용 코발트 조달 입찰을 재공고할 계획임 ✓ 이는 민주콩고의 수출쿼터제 시행으로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됨 	mining.com
2	중국, 희토류 中, 19개국과 희토류 동맹 체결	11.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은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 광물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 ✓ 이로써 캄보디아·나이지리아 등 19개 자원부국과 中의 광물 채굴 관련 협력체가 결성됨 	파이낸셜 타임즈
3	인도, 희토류 인도, 희토 영구자석 제조 촉진 프로그램 승인	11.2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는 728억 루피(약 1.1조 원) 규모의 희토류 국내 제조 촉진 프로그램을 승인함 ✓ 이는 연간 총 6천 톤 규모의 제조시설 설립을 지원해 인도의 자원 자립도를 제고할 예정임 	로이터
4	한국, 게르마늄 韓, 국내기업 협력으로 게르마늄 공급망 강화	11.21.(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아연·HK머티리얼즈·국가희소금속센터는 게르마늄 협력 MOU를 체결함 ✓ 민관 협업 모델을 통해 게르마늄 생산부터 산업 활용까지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예정임 	CNews
5	인니, 니켈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 폐기물로 생산량 감축	11.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광산 시설인 모라왈리 산업단지는 폐기물 축적으로 인해 가동률이 감소함 * 광미 저장소 용량이 가득차면 환경·안전 규제로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함 ✓ 해당 공장에서 사용하는 고압 산 침출 방식은 저렴하나,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음 	mining.com
6	미국, 테크 아마존, 美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11.2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은 美 정부의 AI·고성능 컴퓨팅 역량 확대를 위해 약 500억 달러(약 73.4조 원) 투자 계획임 ✓ 동 프로젝트는 내년 착공 예정이며, 정부를 위해 설계된 데이터센터에 약 1.3GW가 추가될 전망임 	CNBC
7	중국, 반도체 中, 엔비디아 칩 접근을 위해 동남아로 우회	11.2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반도체에 접근하기 위해 동남아에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훈련 중임 ✓ 이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빠르게 성장함 	로이터
8	한-미, 자동차 美, 韓 車관세 15%로 11.1일 소급 인하	12.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는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함 ✓ 이는 11월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대한 후속 조치임 	연합뉴스

◆ 주간 이슈 포커스

①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미·중, 희토류 中, 19개 국가와 희토류 동맹 결성해 美 협력 체제에 맞대응



中, 19개국과 희토류 동맹 맺어 美 탈(脫)중국 희토류 공급망에 대응

- ▣ 리창 중국 총리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 광물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19개국*과 광물 채굴 관련 협력체를 출범함

*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9개국으로, 전체 리스트 아직 미공개
- ❖ 이들 국가는 희토류·리튬·니켈·코발트 등 광물의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채굴·가공 인프라와 이익 배분 구조가 취약해 중국의 투자를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기대를 하고 있음
- ▣ 이는 미국이 탈(脫)중국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희토류·핵심광물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하는 것에 대응한 전략으로 해석됨

출처: 블룸버그(11.24.), 파이낸셜타임즈(11.23.)

美, 우방국 중심으로 희토류 공급망 구축 노력 지속

- ▣ 美는 호주·한국 등 동맹국과 희토류 채굴부터 정제, 재활용까지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에 대응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
 - ❖ 미국과 호주의 ‘핵심광물·희토류 채굴 및 가공 확보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ecuring of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 ▶ 양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와 금융지원으로 희토류·리튬·니켈 등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임
 - ▶ 특정 광종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보 공유와 비축량 방출, 조달선 전환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비상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함
 - ❖ 미국·한국·일본 등 13개국과 함께하는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 ▶ ’24.7월 한국이 의장국을 맡으면서, 13개국과 함께 희토류·코발트·니켈·리튬 등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 비축, 인프라 및 광산 투자에서의 공동 금융지원·개발 금융기관 활용 등이 본격화됨

출처: 백악관(10.20.), CSIS(10.20.), 외교부('24.6.27.)

▶ 美와 中의 희토류 공급망 협력 비교

기준	美 주도 희토류 동맹	中 19개국 녹색 광물 이니셔티브
동맹국 성격	한국·호주·EU·일본 등 선진국 위주의 동맹구조	캄보디아·나이지리아·미얀마 등 자원부국 중심의 동맹구조
협업 구조	미국·호주 등은 광산의 정제·가공 역량을 키우고, 한국·일본 등은 소부장 산업 역량을 키우는 상호 보완 구조	다수의 자원 보유국이 희토류 광물 매장량을 제공하고 중국이 정제·가공 기술 및 투자를 제공하는 구조
목표	중국 의존도 축소 및 안보 리스크 완화	미국 측 블록 국가 동맹에 대한 효과적 대응
안보	프렌드쇼어링 전략으로, 동맹국들을 묶어 중국을 배제·우회하는 형태의 경제 안보 블록을 강화	중국과 자원부국 간 협력을 통해 서방이 주도하던 자원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외교적 연대를 지향
재원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의 경우, 양국이 각각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단기간 내 동원하기로 결정	현재로서 구체적인 금액과 펀드 구조는 불명확
공급망 영향	희토류·리튬·니켈 등에서 비중국 생산·정제를 확대하고, 비상대응 메커니즘과 비축을 통해 대응력 강화	중국이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에 자원 부국의 네트워크가 추가되어, 향후 수출통제 및 가격·물량 조절에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짐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중국, 리튬 일부 광산 운영 중단과 계절적 수요급등으로 中 리튬 가격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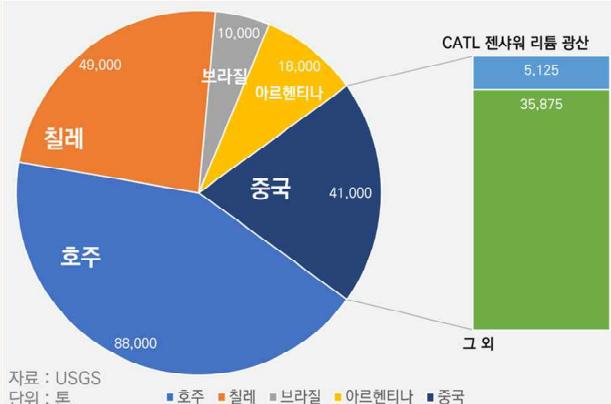
▣ 11.27일, 탄산리튬 가격은 91위안/kg을 기록하며 2024.6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선물가격* 또한 한 달 만에 17% 상승하여 공급과잉 시장 역학에 변동 발생

* 11.19일, 광저우 선물거래소(GFEX) 탄산리튬 선물가격은 11월 2주에 비해 10% 이상 급등하여 톤당 100,000위안(약 2,100만 원)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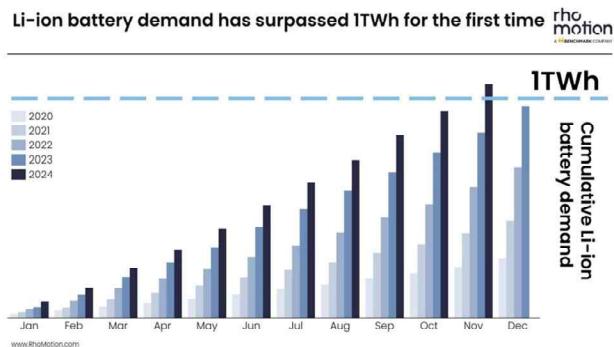


▣ 이는 ▲中 장시성에 있는 CATL 소유의 리튬 광산의 생산 중단 ▲전통적 성수기인 연말을 앞두고 심화된 구매 경쟁 ▲전기차·ESS 수요 강세로 인한 투기적 매수세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

CATL 리튬 광산 생산 중단으로 中 리튬 공급 10% 감소



연말 성수기 탄산리튬 수요 50% 이상 증가



- 전 세계 리튬 생산량에서 中은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CATL 젠샤워 리튬 광산은 中 리튬 생산량의 12.5%를 차지함
- 광산이 위치한 장시성 이춘은 中 리튬 생산능력의 8%가 집중되어, 젠샤워 광산의 생산 중단은 지역 클러스터 전체에 운영 차질을 줌
- Fastmarkets에 따르면 젠샤워 광산 중단으로 中 월간 탄산리튬 공급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SMM에 따르면, 중국 탄산리튬 생산·출하하는 10~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50~60%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됨
- 또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ESS 프로젝트들은 매년 11~12월에 연간 판매 목표와 보조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출하를 집중시킴
- Rho Motion에 따르면 작년 11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80만 대였으며, 이 중 중국이 2/3을 차지함

- ▶ 그러나, BMI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 세계는 이미 연간 수요보다 약 15만 톤 더 많은 리튬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 초 전기차·ESS 업계 비수기에 리튬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 단, 올해 일부 광산·정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확대 계획을 늦추고 있으며, 글로벌 수요 또한 장기적인 상승세에 있기에, '23~'24년과 동일한 수준의 리튬 가격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출처: Mysteel(1.14.), Argus(6.19.), Mining.com(11.2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인도, 희토류 인도, 1조 원 규모 희토 영구자석 국산화 프로그램 승인

AI가 선정한 이슈

2025.11.20일부터 12.2일까지의 공급망 이슈를 분석한 결과, 11.25일 보도된 “**인도 정부의 대규모 희토 영구자석 제조 촉진 프로그램 승인**”이 가장 시의성과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Q. 인도 정부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촉진 프로그램 규모는?

A. 이 프로그램은 645억 루피(약 1조 원) 규모의 판매 연계 인센티브와 75억 루피(약 1,227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연간 6,000톤 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Q.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A. 현재 90% 이상 중국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자국에서 전주기로 생산해, 전기차·풍력·방산 등 전략 산업 공급망을 자립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호주·일본과 함께하는 쿼드(Quad) 협력으로 희토류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고, 서방·인·태 진영의 대체 허브로 부상하고자 합니다.

Q.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은?

A. 인도·호주·미국 등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인도의 희토류 프로젝트를 새로운 공급선 후보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희토류 제조 역량을 키워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슈 더 알아보기

인도 정보부 장관은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힘

▶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내용
총 금액	총 예산 7,280억 루피(약 1.1조 원) 규모
생산목표	소결 희토 영구자석 통합 생산능력 연 6,000톤 구축
시행시기	7년(초기 2년 공장 구축, 이후 5년 판매 연동 인센티브 지급)
시행주체	중앙정부 관련 부처 주관, 인도 상공부 실행, 최대 5개 민간 협작 기업 글로벌 경쟁 입찰로 선정

▶ 쿼드(Quad)란?

쿼드란 인도,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경제 협의체로, 인·태 지역에서 중국 견제, 공급망·기술·에너지 협력 등을 목표로 하는 전략 파트너십임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대국이자 성장하는 제조·소비시장으로, 쿼드 내에서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이자, 핵심광물·희토류·IT 인력 공급 허브임. 이번에 승인된 인도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촉진 프로그램도 쿼드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맞물린 움직임으로 평가됨

출처: reuters(11.26.), argusmedia(7.2.)

▶ 쿼드(Quad)와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비교

▶ 한국은 MSP의 2대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핵심광물 거버넌스를 설계·조율하는 플레이어로서 활동하고 있는 바, 쿼드와 MSP의 주요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기준	쿼드(Quad)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참여국가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미국, EU,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인도 등
정의·목적	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의 비공식 안보·경제 협의체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해양안보·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함	미국 주도의 다자 파트너십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안정화하고, 책임 있는 채굴·제련·재활용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협력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등 전략 기술 공급망 해양안보, 합동훈련, 해양 감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연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광물 탐사·채굴·제련·재활용 프로젝트 공동 투자 ESG 기준 적용·투명성·거버넌스 강화 에너지전환·첨단산업 필수 광물에 집중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공조 강화 핵심광물·반도체·통신망 협력 이니셔티브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파일럿 광물 프로젝트 추진 아프리카·남미·동남아 자원국과의 공동 회의·투자 협력

출처: SMM(4.30.), European Market Outlook for Battery Storage 2025–202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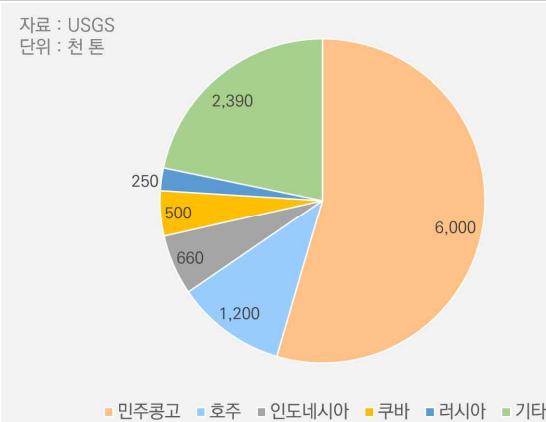
◆ 산업·품목 심층 분석

글로벌, 코발트 글로벌 코발트 공급망과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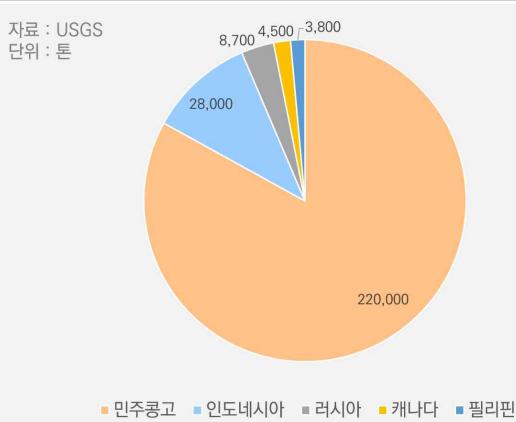
11.20일 기준 국제 코발트 현물가는 톤당 약 48,570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9.9% 급등하였으며, 올해 초와 비교하면 약 104~105% 상승함. 이는 전 세계 코발트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콩고공화국(DRC)이 올해 시행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결과임. 민주콩고는 올해 2~10월까지 코발트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며, 10월에는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출량을 제한함. 코발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원료 가격이 급등하자 NCM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성차 업계 및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번 산업·품목 심층 분석에서는 코발트 광물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와 함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글로벌 코발트 공급망 동향

▶ 국가별 코발트 매장량 현황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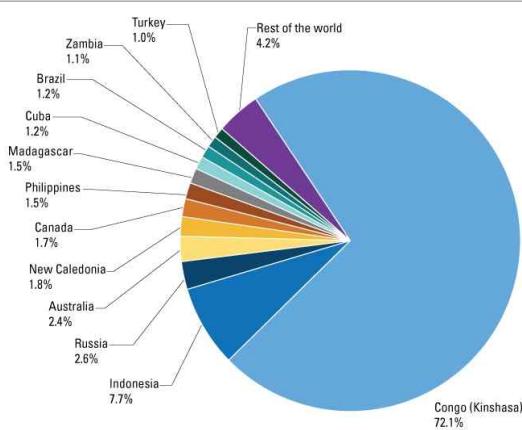
▶ 국가별 코발트 생산량 현황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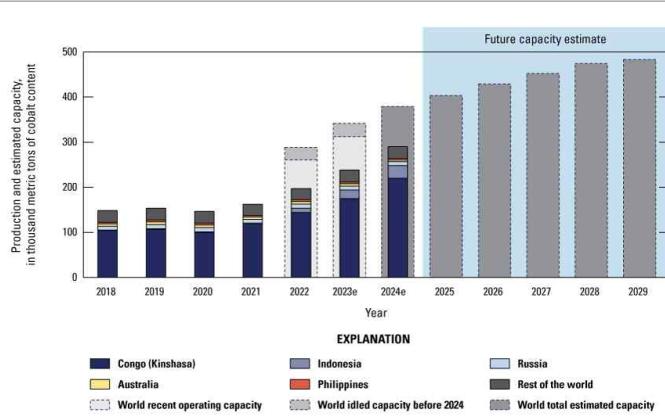
민주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약 절반,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코발트 공급망은 민주콩고에 편중되어 있음. 2025년 기준, 전 세계의 연간 코발트 생산능력은 약 30~35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민주콩고가 약 20만 톤 이상, 2위 인도네시아가 약 4~5만 톤 수준, 3위 호주가 1만 톤 안팎 수준일 것으로 보임.

한편, 코발트 전문 연구기관들은 2030년에 전 세계 코발트 수요가 40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재 수요의 약 2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 저코발트 NCM 배터리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임을 감안하더라도, 전기차 보급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고성능 합금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총량 기준으로 코발트 수요는 견조할 전망임

▶ 글로벌 코발트 생산 능력 현황



▶ 글로벌 코발트 산업 전망 (~'29e)



코발트 수출정책으로 보는 코발트 가격 동향

'25년 한 해의 코발트 가격은 1월 바닥을 확인한 이후 2월 수출금지 조치와 10월 쿼터제 전환을 거치며 계단식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월 말에는 톤당 약 21,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수출금지 발표를 기점으로 3~4월에는 톤당 30,000달러 수준, 10월에는 톤당 45,000달러 수준으로 사실상 두 배 이상 급등함



'25.2월, ARECOMS(민주콩고의 전략광물시장 규제당국)은 모든 코발트 수출을 최소 4개월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여 생산 자체는 허용하되 수출만을 막는 방식으로, 필요시 연장·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음. 이는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코발트 가격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국가의 전략광물임에도 자국 물량 비중이 적다는 내부 여론이 있었기 때문임. 이에 글로벌 코발트 시장의 물량이 급감하면서 코발트 메탈·수산화물 가격이 수개월 사이에 50% 이상 뛰었고, 저점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하여 배터리 업계에 급격한 원가 부담과 재고 비축 경쟁을 유발함

지난 10월, 민주콩고는 코발트 전면 수출금지를 해제하고 연간·월간 상한을 두는 쿼터제로 전환하여 코발트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함. 이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비공식·불법 채굴을 줄이며, 자국에서 고부가가치 정련 작업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임. 또한 '25년 연말까지의 잔여 물량과, '26~'27년의 연간 쿼터 상한은 과거 수출량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설정되어, 수출 재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공급 축소와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수출쿼터제 발표로 향후 코발트의 시장 공급이 예전되었음에도 코발트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시장이 코발트 수출쿼터제를 장기적인 공급통제로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시장은 이를 작년 대비 약 50%에 가까운 구조적 감산으로 보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이러한 콩고발(發) 공급 리스크와 가격 변동 속에서, 미국은 코발트 광물의 전략 비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코발트 입찰을 재공고하기로 결정함. 앞서 미 국방물자조달청(DLA)은 지난 8월 최대 7,500톤(약 5억 달러, 한화 약 7,300억 원) 규모의 코발트 구매 입찰 공고를 계획했다가 증빙 미비의 이유로 취소한 바 있음. 이후 가격이 수 배로 급등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조건을 조정하여 재입찰을 결정함. DLA는 공급업체에 5년간 고정 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비축 수요는 글로벌 가격 상방 압력을 유발하고, 비(非)동맹국·신흥국 입장에서는 코발트 물량에의 접근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참고) 코발트의 윤리적 딜레마

11월, 민주콩고는 국영 코발트 회사인 EGC(Entreprise Générale du Cobalt)를 통해 ‘추적가능한 코발트 (traceable cobalt)’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함. 이로써 최초로 1천 톤의 추적가능한 ASM* 코발트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임. 추적가능한 코발트란 채굴부터 정·제련까지 생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추적해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안전 미준수 등 ESG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코발트임. 콩고가 이러한 생산을 시행한 이유는, ASM 부문의 수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프리미엄 가격을 확보하기 위함임. 단, 아직 물량이 전체 공급 대비 매우 적으며, 시스템 운영 비용이 높고, 비공식 채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이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됨

* 장인 및 소규모 채굴(Artisanal and Small-scale Mining); 개인·가족·소규모그룹이 운영하는 채굴 활동을 지칭하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과 귀금속 등 다양한 광물을 채굴하는 산업임

이러한 윤리적 시도는 민주콩고 코발트 산업 역사의 구조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됨. 식민지 시기를 지나며 민주콩고에서 코발트·구리는 수탈과 인종차별적 노동체제를 통해 채굴되었으며, 독립 이후에도 내전과 부패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진출하여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자원권을 확보하게 되며 오늘날 민주콩고의 코발트 채굴·정제련의 대부분이 중국 국유기업과 그 파트너사들이 장악하고 있음. 전문 분석기관들에 의하면, 콩고에서 채굴되는 코발트 정광 및 중간재의 60~80%가 중국계 기업으로 향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있음.

서방이 ESG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이, 중국의 국영 은행·기업들은 인프라 투자와 광산 개발권을 맞교환하여 빠르게 지배력을 키워나감. 그 결과, 오늘날 코발트를 소비하는 곳은 주로 유럽·미국의 완성차와 전자 기업이지만, 실제 자원과 생산 인프라에 대한 장악력은 콩고 정부와 중국 기업에 집중된 삼각구도임. 이에, 민주콩고의 ‘추적가능한 코발트’ 생산 시도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최소한의 인권·환경 기준선을 끌어올리려는 부분적인 교정이라는 점에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음

코발트 가격 변동성과 이차전지 산업의 상관관계

코발트 가격과 NCM·NCA 계 이차전지 가격은 분명히 연동되어 있음. 그러나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코발트 가격이 100% 상승하여도 전형적인 전기차용 배터리팩인 NCM811의 kWh당 원가 상승률은 약 3%에 그침.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팩 전체 단가에서 코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밑이기 때문임. 또한, 최근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높이는 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코발트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장기적으로는 코발트 가격과 이차전지 가격의 상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

그럼에도 전 세계 주요국들이 코발트를 활발히 비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코발트가 여전히 방산·항공·에너지 분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물자이기 때문임. 동시에, 공급망이 지나치게 민주콩고와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아무리 전기차 분야에서 코발트 의존도를 줄여도 국가 전체 공급망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음. 또한, 코발트는 물성 대체가 어려우며, 인증·검증에 수년이 걸려 단기적으로 대체제를 찾기 어려움

▣ 출처

- Alice Yu. (2025, October 16). S&P Global.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research/2025/10/>
- Muflah Hidayat. (2025, October 15). Discovery Alert. <https://discoveryalert.com.au/drc-cobalt-export-restrictions-global-supply-chains-2025/>
- (2025, November 16). Reuters.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
- Forced Labor in Cobalt Mining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23, May 3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 Alexander Cook. (2023, October 23). Fastmarkets. <https://www.fastmarkets.com/insights/drc-cobalt-export-quotas-lme-week-2025/>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배터리 에코프로, 헝가리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 준공

- ▣ 에코프로는 헝가리 데브레첸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최초로 유럽 생산 거점 양극재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힘
- ◆ 해당 공장에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와 질소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에이피 등이 입주함
- ◆ 공장의 연간 양극재 생산능력은 54,000톤으로, 이는 전기차 6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내년부터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를 순차적으로 양산할 예정임

출처: 연합뉴스(11.30.)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4주)

비철금속 | 금리인하 기대 및 생산 차질로 동 가격↑, 재고 감소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1월	전년비(%)	11.3주	11.4주	전주비(%)
동	9,147	9,777	6.9%	10,741	10,896	1.4%
니켈	16,812	15,185	△9.7%	14,428	14,576	1.0%
아연	2,779	2,843	2.3%	3,155	3,160	0.2%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 (동)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및 메이저 광산 생산 차질로 인해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 (니켈) 인도네시아 광미댐 안전 점검에 따른 공급 우려 및 LME 재고 감소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철강 | 中 단기 화물 항만료 인하로 재고 소진이 기대되어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1월	전년비(%)	11.3주	11.4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8.45	△20.5%	113.76	111.05	△2.4%
원료탄	240.90	185.86	△22.8%	196.40	199.00	1.3%
철광석	109.89	101.50	△7.6%	104.02	105.62	1.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 (유연탄) 계절성 수요둔화 및 대체재로서의 LNG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 (철광석) 中 정부의 단기 화물 항만료 인하로 올해 최고 수준인 철광석 재고 소진이 기대되며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1월 4주)

희소금속 | 원료 가격 상승 및 양극재·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로 탄산·수산화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11월	전년비(%)	11.3주	11.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069	△11.0%	1,028	1,028	-
탄산리튬	12,526	10,104	△19.3%	12,716	12,863	1.2%
수산화리튬	11,398	9,628	△15.5%	11,281	11,438	1.4%
코발트 (U\$/lb)	16.25	19.23	18.3%	25.1	25.3	0.8%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45,706	△4.5%	238,200	232,200	△2.5%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72,884	30.9%	103,600	104,200	0.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탄산리튬) 원재료인 스포듀민 가격의 추가 상승과 ESS용 배터리 부문의 수요급등으로 가격 상승
- ▣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가격 상승 및 中 양극재 시장 가격 상승으로 수산화리튬 가격 또한 상승

에너지 | 美-러 관계 완화 조짐 및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11.3주	11.4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0.04	△9.54	64.19	63.15	△1.04
브렌트유	79.86	68.77	△11.08	63.71	63.08	△0.63
WTI	75.76	65.37	△10.39	59.46	58.48	△0.98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러-우 종전 논의에서 美의 러시아에 대한 완화된 태도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 11.25일, 블룸버그는 스티브 위트코프 美 특사가 친러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보도하여 미국의 대러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강화됨
- ⌚ 또한, 美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증가하여 상기 유가 하락 효과를 증폭함
- ⌚ 한편, 11.30일 OPEC+ 회의에서 생산 물량의 확대 없이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월간 공급망

◆ PIIE,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상품 교역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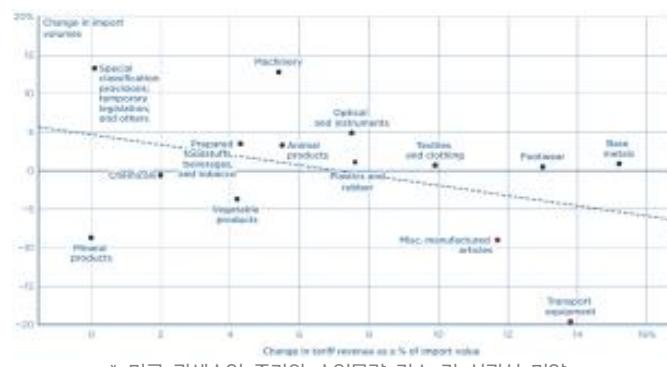
작성 KOTRA 워싱턴D.C.무역관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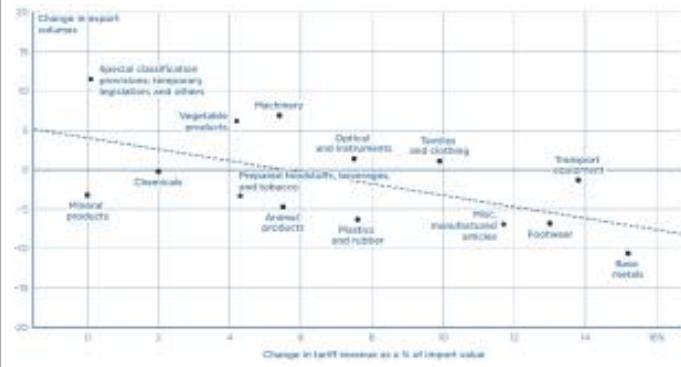
□ PIIE 관세 영향 분석 개요

- ▶ PIIE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관세 조치가 수입 확대·수출 감소 등 단기적 역효과를 초래했다고 평가(11.18.)
- ▶ ’25년 상반기 총수입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총수출은 감소했으며, 이는 ▲관세 시행 이전 사전수입(front-loading) 확대 ▲관세 부과 이후 중간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
- ▶ ’25년 1~3월 실질수입은 전년 대비 상당 폭 증가하였으며, 관세 시행 이후(4~7월)에도 기계류·광학기기·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 유지
- ▶ 반면 중간재·부품 조달 비용 상승으로 동 기간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수출이 감소하여, 관세가 수입 억제보다 수출 둔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 PIIE는 이와 같은 관세정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전반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미국 교역 구조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관세수입 증감률 대비 수입량 증감률(%) 비교〉
‘25년 vs ‘24년(4~7월)



〈관세수입 증감률 대비 수출량 증감률(%) 비교〉
‘25년 vs ‘24년(4~7월)



[자료: PIIE]

2. 상세

▣ HTS(미국 통합관세표) 기준 품목별 실질수입 변화

- ◆ HTS 기준 다수 품목군은 관세 시행 이후에도 수입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수송장비는 고율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여 품목별 영향 차이 존재
 - ▶ 기계류·광학기기·가공식품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25.4~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세 시행 이후에도 수입 확대 흐름이 지속
 - ▶ '25년 1~3월 실질수입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데 이어, 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저 수요와 사전 수입 효과가 복합 작용하면서 상승세 지속
 - ▶ 반면 수송장비(HTS 86~89)는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영향으로 19.6% 감소하며, 전체 품목군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

▣ 관세수입 증가와 수입 감소 간 상관성 분석

- ◆ 관세수입 증가와 수입물량 감소 간 연계성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며, 다수 품목의 수입 증가 등 고율관세의 수입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
 - ▶ 관세부담 확대가 즉각적인 수입 억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상당수 품목에서 관세 시행 이후에도 수입 증가세 지속
 - ▶ 다만 수송장비와 기타 공산품 등 일부 품목군에서는 관세부담 증가에 따라 수입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등 일정 수준의 연계성 확인
 - ▶ PIIE는 HTS 전체 기준 관세수입 증가율과 수입 감소율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관세 정책의 수입조절 기능이 제한적임을 시사

▣ 관세 증가와 수출 변화 간 상관성

- ◆ 대부분 품목군에서 수출 감소가 나타났으며, 관세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 간 음(-)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 ▶ 수출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부품의 조달비용이 관세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25.4~7월 수출량이 전년 대비 축소
 - ▶ 관세수입 증가율이 높을수록 수출 감소 폭도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의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 반영

〈미국 누적 실질수입 비교('24년 기준) ('24.4~7월 대비 '25.4~7월 증감률)〉

품목군 (HTS 챕터)	'24.4~7월 누적 수입액 (단위: 10억 달러)	'25.4~7월 누적 실질 수입액 (단위: 1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관세수입 증감률 ('24→'25, CIF 기준)
동·식물성 유지 및 지방	5.7	5.1	-10.8%	3.3%
동물성 제품	15.6	16.1	3.3%	5.5%
무기 및 부품	1.6	1.4	-10.2%	6.3%
비금속 및 관련 제품	57.7	58.2	0.9%	15.2%
신발	11.3	11.3	0.5%	13.0%
원피 및 가죽	4.9	4.8	-0.3%	7.0%
기계류	333.7	376.3	12.8%	5.4%
광물류	97.2	88.7	-8.7%	0.0%
기타 공산품	39	35.5	-9.0%	11.7%
광학·정밀기기	44.5	46.7	4.9%	7.5%
귀금속·보석류 등	26.2	23.3	-10.9%	1.6%
플라스틱·고무	38.4	38.8	1.1%	7.6%
식료품·음료·담배	36	37.3	3.5%	4.3%
화학류	125.2	124.4	-0.6%	2.0%
특별분류·임시규정	43.9	49.7	13.3%	0.1%
석재·유리	9.4	9.3	-1.8%	7.9%
섬유·의류	38.8	39.1	0.7%	9.9%
수송장비	149.6	120.4	-19.6%	13.8%
식물성 제품	22.3	21.5	-3.7%	4.2%
목재·목탄·코르크 등	8.8	8.8	0.4%	2.2%
목재펄프·종이	10.4	9.7	-6.7%	4.7%
예술품·골동품	3.4	3.1	-7.8%	0.6%

자료: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DataWeb, 미 노동통계국(BLS), PIIE 가공

공급망 더 알아보기

◆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동향 및 시사점

작성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김단비 전문관

※ 본 보고서는 김단비('25.11.28.),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체결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 Review 25-22호를 바탕으로 작성

1. 배경

- ▣ 미-중 통상갈등 심화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략적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채굴·정제·가공 역량 확충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
-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27년까지 중국 외 완결적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미국 내 희토류 채굴·정제 역량 투자와 동맹국 협력을 강화 중'
- ▶ 단, 미국 내 희토류 산업 기반이 미비하여 원료 확보 및 관련 시설 구축 등 상당한 초기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개최(10.31.) 직전 아태지역 주요국(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4건의 양자 합의를 발표한 바 있으며, 본 보고서는 해당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최근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양자 협력 동향]

체결국	체결 일시	합의 문서
미국-호주	2025. 10. 20.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미국-일본	2025. 10. 27.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미국-말레이시아	2025. 10. 26.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MOU
미국-태국	2025. 10. 26.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MOU

자료: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22호

2. 미국-4개국(호주·일본·말레이시아·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협정 주요 내용

▣ (미국-호주)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10.20)

* 「United States-Australia Framework for Securing Supply in the Min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2025.10.20.)」

◆ (주요 내용) ▲비축제도 활용 ▲공동 투자 확대 ▲표준기반 거래제도(standards-based system) 등 정책 수단을 통한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 ▶ (비축제도 활용) 양국은 기존 비축 수단(미국의 산업 수요 및 비축 인프라, 호주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량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에 협력
- ▶ (채굴·가공 관련 투자 가속화)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양국 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에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최소 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 ▶ (가격 메커니즘) 비시장적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표준 기반 거래제도, 최저가격제 등)을 마련하고, 미래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동맹국과 협력 확대

[미국-호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산업 수요 및 비축 인프라, 호주는 핵심광물 전략비축 제도(Critical Mineral Strategic Reserve) 등을 활용하여 핵심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협력
채굴 및 가공 단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굴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양국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을 통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equity),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rrangements),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및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프로젝트 자금 및 운영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선정) 광산 채굴·정련·분리·재활용 전 단계를 포함하여 공급망의 공백(gaps)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식별 - (자금 조달) 서명일로부터 6개월 내에 미국 및 호주 내 프로젝트에 최소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제공 - (투자 지원)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메커니즘 개발 - (투자 촉진을 위한 장관 회의 개최) 180일 이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광물·금속 투자 장관 회의(Mining, Minerals and Metals Investment Ministerial)를 개최 • (허가 및 규제) 국내법 범위 내에서 채굴·정련·가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
가격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시장적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기반 거래제도(standards-based system) 및 최저가격제(price floor) 등의 제도적 수단을 마련 • 미래 국제 핵심광물 가격 책정 관련 협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자산 매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광물 및 희토류 관련 자산 매각을 심사·억제할 권한 및 외교적 도구를 개발 및 강화
재활용·스크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 재활용 기술 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폐광물 관리체계 관련 협력
제3국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과의 협력 및 기존 국제 협력 메커니즘 활용
지질자원 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호주·제3국 내 광물자원 매핑 협력
신속 대응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호주 핵심광물 공급 안보 대응 그룹(Critical Minerals Supply Security Response Group)'을 신설 • 미국 에너지부 장관, 호주 자원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며, 주요 광물별 공급 취약성을 진단·대응

자료: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22호

▣ (미국-일본) 핵심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10.27)

* 「United States-Japan Framework for Securing the Supply of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through Mining and Processing(2025.10.27.)」

- ◆ **(주요 내용)** 기본적으로 미국-호주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구조로 ▲공동 투자 확대 ▲고표준 시장 (high-standard marketplace) 구축 등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 ▶ **(채굴 및 가공 투자 가속화)**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양국 내 채굴 및 가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관련 지원을 진행하고 프레임워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국 및 동맹국 구매자에게 최종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
- ▶ **(프로젝트 선정)** 영구자석, 배터리, 촉매, 광학 소재 등 파생 제품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관심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 ▶ **(가격 메커니즘)** 각국은 국내 광물 시장을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채굴·가공 및 거래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을 구축하고 기타 가격 책정 조치를 마련

[미국-일본 핵심광물 및 희토류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금융지원제도, 무역 조치, 비축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광물 공급 안정화 지원 공급망 참여 기업의 다변화를 위한 업·다운스트림 기업 간 대화 촉진
채굴 및 가공 단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굴 및 가공에 대한 투자) 양국은 정부 및 민간 부문을 통해 보증, 대출, 지분투자(equity), 오프테이크 계약(off-take arrangements), 보험 등 다양한 금융 및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프로젝트 자금 및 운영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선정) 희토류·핵심광물 이외 영구자석, 배터리, 촉매, 광학소재 등 파생 제품을 포함하여 공급망 공백(gaps) 해소 목적의 우선순위 프로젝트 식별 (자금 조달) 서명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공동 선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조치 시행 / 양국 및 유사입장국에 대한 최종제 제공 목적 (투자 지원)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메커니즘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장관 회의 개최) 180일 이내 투자 촉진을 위한 광물·금속 투자장관회의 (Mining, Minerals and Metals Investment Ministerial) 개최 (허가 및 규제) 국내법 범위 내에서 채굴·정련·가공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
가격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시장적 정책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채굴·정제·거래 원가를 반영한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 구축, 필요시 이를 위한 가격 책정 조치(price measures) 마련
자산 매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광물 및 희토류 관련 자산 매각을 심사·억제할 권한 및 외교적 도구를 개발 및 강화
재활용·스크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물 재활용 기술 투자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폐광물 관리체계 관련 협력
지질 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미국·일본·제3국 내 광물자원 매핑 협력

구분	주요 내용
신속 대응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 핵심광물 공급안보 신속대응그룹(Critical Minerals Supply Security Rapid Response Group)’ 신설 /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동 주재하며, 주요 광물별 공급 취약성을 진단·대응
비축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비축체계 검토

자료: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22호

▣ (미국-말레이시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 협력 양해각서(MOU)*(10.2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2025.10.26.)」

- ▷ (주요 내용)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우선순위 부여 ▲시장 보호 조치 및 규제 협력 강화
- ▶ ▲매각 광물 자산 및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미 기업 우선 투자 기회 부여 ▲희토류 자산 매각 심사 강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관련 비시장 정책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조치 도입 등

[미국-말레이시아 핵심광물 협력 MOU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 및 기술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광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기술 등을 공유 상호 관심사업을 발굴·지원하며, 말레이시아 광물 자산 또는 말레이시아 본사 기업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미국의 투자를 우선 고려
규제 협력 및 투자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한 투자자 대우,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확보
자산 매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은 희토류·핵심광물 자산 매각 및 외국인 투자 심사에 관한 제도적 검토권을 강화
가격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시장적 정책과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을 구축, 가격 하한(price floor) 또는 유사 제도를 도입
분기별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긴급(ad hoc) 협의체 소집 가능

자료: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22호

▣ (미국-태국)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투자 촉진 협력 양해각서(MOU)*(10.26)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CONCERNING COOPERATION TO DIVERSIFY GLOBAL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AND PROMOTE INVESTMENTS(2025.10.26.)」

- ▷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MOU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관련 ▲정보 공유 ▲투자 우선순위 부여 ▲시장 보호 조치 및 규제 협력 강화
- ▶ 단, 태국 MOU는 ▲국가 및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태국 내 핵심광물 관련 프로젝트에 미국의 투자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

- ▶ 또한 원자재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태국 내 부가가치 산업 및 가공 산업 지원 강조

[미국-태국 핵심광물 협력 MOU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 및 기술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은 태국의 광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모범사례(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기술을 교환하고, 필요시 우선순위 프로젝트 관련 협력 미국 기업에 대해 태국 내 또는 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자산 매각 시 우선투자 기회 부여 프로젝트에는 기술이전,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현지 인력훈련 조항 포함
정책 및 규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허가 절차 간소화, 투자 안정성 확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 포함
자산 매각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상 이유로 핵심광물 및 희토류 자산 매각을 사전 심사·의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신설 또는 강화
가격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시장적 정책과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고표준 시장(high-standard marketplace)’을 구축, 가격 하한(price floor) 또는 유사 제도를 도입
투자정보 사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입찰(tenders) 또는 프로젝트 정보를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적으로 상호 통보
분기별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긴급(ad hoc) 협의체 소집 가능

자료: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22호

3. 평가 및 시사점

▣ 미국의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영향력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확대 추세

- ❖ (중국 견제) 미국은 4건의 핵심광물 협정에 공통적으로 ▲투자심사 제도 및 ▲가격 메커니즘 등을 명시하며 국제 공조 기반의 대중 견제 기조 강화
 - ▶ (투자심사 제도) 중국의 신규 광산 자산 인수 및 제3국 시장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 (가격지원 메커니즘) 가격 하한제(price floor) 등과 같은 가격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유사 입장국 간의 핵심광물 시장을 구축하는 방안 추진
 - ※ 핵심광물 분야의 가격하한제 등 가격 메커니즘 논의는 G7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CSIS, 2025)
- ❖ (협력국 확대) 대중 의존도 완화 목적의 美-ASEAN 국가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 ▶ 미국-태국, 미국-말레이시아의 MOU는 미국이 ASEAN 내 국가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부로 평가
 - ※ 아세안은 풍부한 매장량, 저비용 생산 기반, 정제 가공 역량 등으로 중국 외 공급원으로 주목받음. 이외, 미국이 아세안에서 핵심광물 관련 자체 투자·조달 거점을 재구축하지 않으면, 핵심광물 관련 정련·물류의 중국 레버리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 제기(CSIS, 2025)
 - ▶ 단, 이번 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비구속적 협정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내 ▲전략적 자율성 유지 ▲인프라 정제 역량 부족 ▲정치·규제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바 실질 협력 동향에 대한 지속 관찰 필요

- ▶ 미국은 이후 카자흐스탄(11.6.), 사우디아라비아(11.17.)와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MOU를 체결하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

* 카자흐스탄은 희토류, 우라늄, 사우디아라비아는 중희토류가 다량 매장

▣ 미국-호주, 미국-일본 협력 기반으로, 중국 외 대체 공급처 확보가 시급한 핵심 광물(희토류 등)의 정제·가공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 ❖ 미국의 호주,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력 프레임워크는 ▲금융 지원 ▲가격 보조 메커니즘 등을 통해 동맹국 내 채굴·정제·가공 역량 투자를 가속화할 전망
- ▶ (자금조달 기반 강화) 미-호, 미-일 프레임워크는 공적 금융, 지분 투자, 대출 보증 등 복합적인 금융 수단을 활용한 투자 지원을 명시
 - ※ 미국 수출입은행은 호주에서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총 22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자금 조달에 대한 7건의 의향서를 발행하였으며, 50억 달러에 이르는 민간투자를 유도할 전망
- ▶ (시장 안정성 강화) 가격 하한제·표준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핵심광물 가격 하락 리스크를 완화하고 프로젝트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전망
- ❖ 특히, 정제·가공 역량 확보가 시급한 핵심광물(희토류, 갈륨 등)은 금융·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
 - ▶ 호주 정부는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호주 내 ▲갈륨 회수 프로젝트* ▲희토류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 공식 발표(10.21.)

* 미국과 호주 정부는 Alcoa Corporation과 계약 체결을 통해 연간 약 100톤의 생산 용량을 갖춘 첨단 갈륨 공장 건설에 합작 투자 발표

** 호주 정부는 Arafura Rare Earth는 놀란스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 프로젝트에 1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 발표

공급망 소식통

- ◆ 2026 호주 공급망 유망분야 웨비나 (12.18.)

작성 KOTRA 시드니무역관

2026 호주 공급망 유망분야 웨비나

한국-호주 정부 및 기업 전문가들이
핵심광물·재생에너지 등
2026년 호주 유망분야 정보와
우리 기업의 진출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목)
오후 2시 (KST) ~



큐알코드 스캔 후 등록

협력 :



kotra
Korea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프로 그램

시 간 (K S T)

순 서

연 사

14:00~14:05 (5')	개회사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 김지민 대사대리
14:05~14:15 (10')	'26년 경제 동향 및 교역 전망 / 유망분야	KOTRA 멤버른무역관 · 정현서 과장
14:15~14:30 (15')	호주 핵심광물 전략 및 국제협력 현황	AUSTRADE · Owen Myatt
14:30~14:45 (15')	NSW주정부 핵심광물 전략, 투자환경 소개	NSW주정부 · Rob Blayney
14:45~15:00 (15')	핵심광물 투자 비즈니스케이스 소개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드니 법인 · 김동주
15:00~15:15 (15')	호주 재생에너지 전략 및 국제협력 현황	AUSTRADE · Rika Sasaki
15:15~15:30 (15')	재생에너지분야 투자 비즈니스케이스 소개	한화에너지 호주법인 · 최익돈
15:30~15:35 (5')	맺음말	KOTRA 시드니무역관

문의 : minki@kotra.org.au

글로벌 경제지표 ['25.12.2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10말	11/28	12/1	12/2	전일비	전년말비
₩/U\$	1,288.00	1,472.50	1,390.10	1,470.60	1,469.90	1,468.40	△0.10%	△0.28%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88.70	1,468.70	1,469.00	1,467.60	△0.10%	△0.42%
₩/CNY	181.37	202.38	195.08	207.76	207.71	207.65	△0.03%	2.60%
₩/¥100	912.25	932.67	945.52	940.40	944.50	942.60	△0.20%	1.06%
¥/U\$	141.19	157.88	147.02	156.38	155.63	155.78	0.10%	△1.33%
U\$/EUR€	1.1105	1.0429	1.1669	1.1583	1.1593	1.1605	0.10%	11.28%
CNY/U\$	7.1092	7.2992	7.1303	7.0777	7.0703	7.0717	0.02%	△3.12%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18.13원, (₩/¥100) 951.96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12/1	12/2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4.26	63.75	△0.5	△6.6	△12.2	
					△0.8%	△9.3%	△16.1%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7.35	107.80	0.5	18.5	7.8	
					0.4%	20.6%	7.8%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11,299.00	11,285.00	△14.0	3199.5	2579.0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860.00	2,858.50	△1.5	748.5	342.0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4,695.00	14,725.00	△0.1%	35.5%	13.6%

▣ 반도체

구 分	'23말	'24말	'25.8말	'25.9말	'25.10말	11/27	11/28	12/1	12월(~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1.74	1.75	5.56	6.59	8.45	11.88	12.25	12.50	12.50
	△14.8	0.5	182.0	240.8	345.7	547.5	567.9	581.6	613.1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38	6.63	9.50	9.45	9.80	10.40	10.40	10.45	10.45
	△2.3	3.9	47.9	39.5	45.4	56.4	56.4	57.1	57.5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分	12/29('23년)	12/27('24년)	11/14	11/21	11/28	전주비(11/21)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451.38	1393.56	1403.13	0.7%	△43.0%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分	12/22('23년)	12/24('24년)	1/2	11/27	11/28	12/1	12/2	전주비(12/1)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2480	2560	2583	2600	0.7%	160.8%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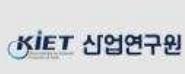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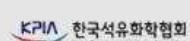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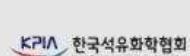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